

노인의 주관적 나이 인식이 건강, 질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우석*, 노대광*, 김은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지원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의생명연구센터

e-mail:key0227@korea.ac.kr

Study of the Impact of Subjective Age Perceptions in the Elderly on Health and Disease

Woo-Suk Jang*, Dae-Kwang Noh*, Eun-Yeob Kim**

*Core Research & Development Center,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Research Institute for Skin image, College of Medicine, Korea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주관적 인식의 노인 연령을 기준으로 신체, 정신건강, 일상활동, 사회적 존중 등의 요인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였다. 2020년도 조사된 노인실태조사 국가통계승인 오픈 데이터를 2차 가공하였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나이에 따라 주관적 노인 그룹과 주관적 비노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노인은 6,463명 주관적 비노인은 3,450명이였다.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들보다 주관적 인식이 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학력이 높은 수록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평소의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주관적으로 노인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그룹이 좋았다. 노인의 주관적 나이와 우울증 결과 현재생활 만족, 의욕저하, 지루함, 불안함, 절망감, 외출 싫음, 기억력 나쁨, 쓸모없음은 주관적 비노인 그룹이 낮았다. 주관적 노인 그룹이 노인의 사회적 존중도 낮음, 대중교통·식당·대형마트/백화점, 병원(의료시설) 이용시 무시(차별)를 경험하고 인식한다고 높은 응답을 보였다. 노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신체적, 생활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1. 서론

현대 사회는 먹거리의 다양화, 의학의 발전, 사회환경의 변화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대수명이 80세 이상으로 늘어났다[1]. 그러나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개인별 노화의 차이가 벌어지고 노화경험도 다양해 최근에는 주관적 노인 연령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주관적 연령에 따른 자신의 주변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이유도 이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한 연구자는 노화의 주관적 연령은 자신이 경험한 질병, 노쇠 등 건강의 다양한 문제와 원인이 생활습관과 환경요인보다 강하게 작용한다고 하였다[2,3].

지금 시점에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체, 정신건강, 일상활동, 사회적 존중 등의 요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연령대별 도움과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2020년도 조사된 노인실태조사 국가통계승인 오픈 데이터

를 2차 가공하였다. 원 데이터의 조사는 2020년 9월 14일~11월 20일 기간 중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일대일 직접 면접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샘플은 원시자료 10,097 명에서 연구주체에 벗어난 184명을 제외한 9,913명을 사용하였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 나이에 따라 주관적 노인 그룹과 주관적 비노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노인은 6,463명 주관적 비노인은 3,450명이였다.

2.2 분석방법

분석용 데이터는 micro-soft EXCEL을 이용하였고, 종속변수 범주형태에 따라 기술통계, Chi-square test 또는 Mann-whitney 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주관적 나이

노인의 실제 나이는 65~102세까지 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 나이는 70.27±4.23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65세 보다 약 5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

참고문헌

인들보다 주관적 인식이 덜 노인이라고 생각했다. 학력이 높은 수록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평소의 주관적 건강상태 역시 주관적으로 노인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그룹이 좋았다. 주관적 인식이 비노인 그룹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빈도가 높았다.

3.2 노인의 주관적 나이와 우울증

노인의 주관적 나이와 우울증 결과 현재생활 만족, 의욕저하, 지루함, 불안함, 절망감, 외출 싫음, 기억력 나쁨, 쓸모 없음은 주관적 비노인 그룹이 낮았고, 상쾌함, 마음의 즐거움, 살아 있음에 즐거움, 기력 좋음은 주관적 비노인이 높게 유의하였다.

3.3 노인의 주관적 나이와 전자기기 사용

자신이 주관적으로 비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스마트폰(인터넷 사용가능), 태블릿 PC·노트북·데스크탑 보유와 사용 비중이 높았다. 전자기기를 사용한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주고 받는 비중이 주관적으로 비노인 그룹이 높았다. 정보검색,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음악듣기(MP3, 라디오 등), 게임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3.4 노인의 주관적 나이와 사회적 존중

노인의 사회적 존중도 낮음, 대중교통·식당·대형마트/백화점, 병원(의료시설) 이용시 무시(차별)를 경험하고 인식한다고 주관적으로 노인 그룹의 응답 높았다.

3.5 노인의 주관적 나이와 죽음

연명의료에 대하여 주관적 노인그룹이 그저 그렇거나 반대하는 응답이 높았다. 죽음에 대한 준비나 교육 수강한 경험은 주관적 비노인 그룹이 높았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한 상속처리·장례의향에 대한 가족과 논의는 주관적 노인 그룹의 응답이 높았다.

4. 고찰

지금 우리시대는 단순히 숫자의 기준으로 노인, 성인, 청소년 이하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의 연령기준도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도 능동적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과 도움이 필요한 수동적 노인을 구분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생활·환경적 여건 등을 고려한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1] Westerhof, G. J., & Wurm, S. "Longitudinal research on subjective aging, health, and longevity: Current evidence and new directions for research", *Annual Review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Vol 35 no 1, pp. 145-165, 2015
- [2] 김가영,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성인의 고혈압 위험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제20권 1호, pp. 162-169, 2019
- [3] 이상희, 허진무, "노인들의 몰입경험, 낙관성, 주관적 연령의 관계분석:경험표집법(ESM)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제20권 1호, pp. 415-426, 2021
- [4] 남혜진, 이인숙, "노인의 주관적 연령과 건강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4권 1호, pp. 125-139, 2019